“모자 사이를 갈라 놓는게 자비 입니까”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1)

라후라가 출가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가비라국으로 가서 나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문안을 여쭈어라. 그리고 라후라의 어미에게 나의 아들 라후라가 사미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라. 어미 자식 사이의 은혜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서로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허망한 것이다. 라후라가 도를 얻으면 당연히 돌아와 어머니를 제도할 것이니, 영원히 생사의 윤회를 끊게 한다면 지금의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목련이 가비라국에 이르자 라후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는 부처님께서 보낸 심부름꾼이 왔다는 소식과 그 이유에 대해 듣고서 라후라를 데리고 높은 누각으로 피했다. 목련이 누각으로 날아 올라가자 야수다라는 어쩔 수 없이 예를 갖추고 물었다.

“세존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존자가 가비라국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련은 말했다.

“태자 라후라의 나이 벌써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출가하여 성인의 도를 닦고 배우게 하셔야 합니다.”

목련 존자가 부처님의 뜻을 전하자, 야수다라가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태자였을 적에 저를 아내로 맞아들이셨습니다. 내가 태자를 받들어 섬기기를 천신 섬기듯 하였는데, 5욕(欲)의 즐거움을 버리시고 궁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약속하시기를 ‘도를 얻으면 맹세코 돌아오겠다.’ 하셨습니다. 도를 얻고 나라에 돌아오셨을 적에도 돌아오시기는 하셨으나 모든 가족들을 길에서 만난 남처럼 대하셨습니다. 나를 외로움 속에서 구차하게 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나의 아들까지 빼앗아 권속으로 삼으려 하십니다. 어떻게 이토록 혹독하게 하십니까? 태자께서 도를 이루고서는 스스로가 자비로운 이라 말씀하시더니,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자비란 말씀이십니까? 라후라를 출가시킬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세존께 제가 말한 대로 전해 올리십시오.”

목련은 우선 정반왕에게 이상의 일을 자세히 전했다. 정반왕은 이 말을 듣고 세존의 이모이자 유모인 대애도(왕비)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 싯달타가 라후라를 데려다 성인의 법을 배우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어미 되는 야수다라가 어리석게 애착하여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깨치도록 해보십시오.”

대애도 부인이 두 번 세 번 되풀이 하여 야수다라를 설득하였으나 야수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대애도에게 말했다.

“제가 예전 친정에 있을 적에 여덟 나라의 왕들이 다투어 와서 구혼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는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다가 태자가 마음에 들어 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태자가 세상에 머무르지 않으려 했다면 무엇 때문에 간절히 애쓰면서 저에게 구혼을 하였을까요? 무릇 사람이란 아내를 가지면 바로 은애하고 좋아하며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세간의 바른 예입니다. 그 예를 버리고 태자도 떠났으면서 다시 라후라까지 출가시켜 영원히 나라의 후사를 끊으려 하니 이게 무슨 의로움입니까?”

왕비 대애도는 이 말을 듣고 묵묵히 말이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분신을 보내어 공중에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옛날의 서원을 기억하는가? 내가 보살이었을 적에 5백의 은전으로 그대에게서 다섯 송이의 꽃을 사서 정광불에게 올리려 했던 적이 있었다. 그대는 두 송이의 꽃을 맡기면서 말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언제나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나는 보살이라 온갖 것을 다 보시해야 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는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나라거나 성이거나 아내거나 아들이거나, 심지어 제 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대를 따르며 보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무엇 때문에 라후라에 미련을 두는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야수다라는 잊었던 그 일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확연하게 떠올랐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차츰 식어지므로 목련을 불러서 지난 일을 사죄했다. 그리고 라후라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촉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다. 라후라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세존을 기필코 뉘우치게 하겠으니, 어머님은 근심하지 마소서. 곧 돌아와서 받들겠습니다.”

라후라가 출가하기 위해 부처님께 간다고 하자 여러 호족의 아들 50명이 라후라를 따라 함께 출가했다.

부처님은 사리불이 화상이 되고 목련이 아사리가 되어 그들에게 10계를 주도록 명하셨다. 부처님께서는 50명의 사미들을 위하여 선제라(고대 인도의 사성(四姓) 가운데 가장 낮은 천민 계급) 등의 전생의 죄와 과보를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라후라가 크게 근심하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크신 지혜와 덕망이 있기에 최상의 공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어리석고 덕도 없으면서 남의 훌륭한 보시를 받다가는 후세에 선제라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건대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셔서 저희들이 업을 짓지 않게 하시고 그 허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다. 두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마련한 맛있는 음식을 한껏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 마침 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약을 먹어 화를 면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혜가 없었기에 산 것을 죽여 제사를 지내며 살아나기만을 빌다가, 결국 병이 낫지 않아 죽고, 후에 지옥에서 다시 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이다. 라후라야 너는 지금 배탈이 날 것이 두려워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며, 배탈이 났다면 약을 먹는 것이 지혜다. 큰 지혜와 덕망을 갖추도록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단정지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착한 인연이 있어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약을 먹고 고통에서 건져질 것이다.”

라후라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미증유경 상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⑪

늘 닮고 싶은 스승

고암 스님과의 인연

스물세 살 때로 기억된다. 부산 불교 청년수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해인사에 갔다. 성철 스님이 퇴설당에 계셨고 지월 스님께서 주지로 계실 때였다. 고암 스님이 조계종 종정으로 계실 때였다. 지금의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과 일타 스님, 법정 스님, 지관 스님 모두 젊었던 시절이었다. 수련회에 참가한 우리는 수련회라는 생각보다는 특별한 나들이라는 생각에 모두 들떠있었다. 수련생으로서 지켜야 할 사찰예절을 잊고 취침 시간이 되어서도 잠이 오질 않았다. 함께 한 수련생들과 좀 더 놀고 싶어서 스님들에게 떼를 썼던 기억이 난다.

지금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이 수련회 책임을 맡았던 것 같다. 스님은 밤늦게까지 수련생들에게 잣을 까주셨다. 어쩌다 스님이 잣 한 알이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면 서로 먼저 주워 먹겠다고 난리를 피우며 깔깔거렸다. 밤이 깊은 줄도 몰랐다.

새벽예불 때,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에 우린 모두 감화되기도 했다. 성철 스님 법문으로 시작하여 돌아가며 법문을 청해 듣고 오계를 받았다. 우린 고암 종정 스님을 찾아가 계를 주시고 법명을 주실 것을

제대로 보답 못해 두고두고 후회

여덟 살 손자도 스승

청했다. 스님께서는 다른 큰 스님들이 계시니 본인은 사양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고 스님이 해주신다고 할 때까지 절을 하자고 약속했고, 우리가 절을 하려 하자 절 받기를 무척 싫어하시는 스님께서 우리의 청을 받아주셨다. 그리하여 스님은 법석에서 계를 주시고 일타 스님, 보성 스님, 지관 스님, 법정 스님이 증명해 주셨다. 그때 받은 법명이 대원성이며, 함께 수련회에 참가했던 남편도 그 때 성원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해인사엔 큰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렇게 큰스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 후 내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에도 고암 스님이 결혼식 날을 잡아주셨고, 첫 아들의 이름 영준도 스님께서 지어주셨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넷이 됐을 때 스님께 안부를 여쭈었더니 스님께서는 아이들 네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안부를 챙기셨다. 스님의 자상하고 인자하심은 이미 알려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더없이 자비하신 할아버지 같았다.

스님이 설악산 신흥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부산에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전화를 하셨다. 스님을 뵙기로 하고 서둘러 나갔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나선 길이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 스님 기차시간 때문에 못 뵐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에 걱정을 하면서 걸음을 서둘렀고, 그냥 가셨어도 할 수 없다 생각했다. 역사에 들어섰을 땐 이미 스님이 말씀하신 기차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혹시나 싶어 역사를 둘러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멀리 스님이 보였다.

“스님! 안 가셨어요? 기차 시간 지난 것 아니에요?”

“지났지.”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기차는 조금 전에 떠났고, 표는 다음차로 바꿨으니 괜찮습니다.”

이런 민망하고 죄송한 일이 또 있을까. 나는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스님은 오히려 미안해하는 마음 덜어주시려고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다.

“괜찮다. 기차야 다음 기차 타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와서 어찌 그냥 갈 수 있나? 아이들 얼굴도 눈에 밟히고 해서 그랬다. 미안해 하지마라.”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만큼 죄송하고 스님의 따뜻했던 마음이 생각난다. 나중에 두고두고 내가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운 것은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을 제대로 못해드린 것이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다. 나는 기장 미역과 조금의 공양미를 부쳐드렸더니 스님께서 미역국 끓여 대중공양 잘했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나중에 생각하니 스님 계신 신흥사는 더 좋은 미역이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연꽃모임을 만들었을 때도 스님은 아주 잘했다며 칭찬해 주셨고, 주머니를 털어 우리회원들에게 공양도 내셨다. 스승이란 그런 것이었다. 늘 좇아갈 수 없는, 늘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스승이란 생각을 했다. 지금은 스님의 영정을 부처님 방에 모시고 늘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 늘 닮으려 살고 있다.

여덟 살 외손자

지난 추석 명절 때 여덟 살 외손자의 말이 생각난다.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하고 묻는다. 나는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했다.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할머니, 그건 땅이잖아요. 땅은 산도 나무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집과 무거운 건물들, 온갖 것들을 다 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땅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여덟 살 손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칠순의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치 법문을 듣는 기분이었다. 내가 몰랐던 이야기니 법문이었다.

법문이라는 것이 거창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법문과 스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듣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스승이고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이 모두 스승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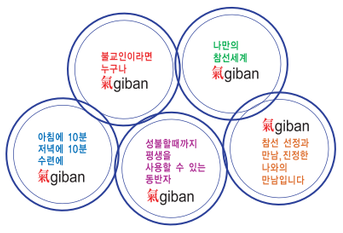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